VOICEYE
voiceye.com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소식지 2016 vol. 2

누리보듬

세상을 보듬고 살아가라

우리들의
꿈을

한. 알. 한. 알.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소식지
누리보듬 2016 vol. 2

CONTENTS

03 인사말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원장 김정숙 젬마 수녀

04 희망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
Since 2011, 주간보호센터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자 & 후원자

06 건강 + 자신감 UP / 08 배움 + 즐거움 UP
전문강사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10 내일을 향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손으로 만드는 묵주 & 꽃차

12 사랑으로 이뤄진 또 하나의 가족
부모님, 사회복무요원, 교사들이 전하는 이야기들

14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

15 2015년도 세입세출, 후원금 결산공고

발행일 2016년 4월 발행인 김정숙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와5길 83
전화 064)724-0999 팩스 064)724-0998 홈페이지 www.jejucaritas.co.kr 디자인 · 인쇄 demong 010-2252-6293

인사말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원장
김정숙 젬마 수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봄을 맞은 모든 자연만물이 환호하며 생명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삼월부터 법인 인사이동으로 주간보호 이용인들과 함께 동반하게 된 김정숙 젬마수녀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우리 만남의 의미가 하느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바람이 많았던 어느 늦가을 오후, 제주 동편에 있는 어떤 오름을 오르다가 신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소나무 몇 그루와 넝쿨나무 몇 나무가 어울렁더울렁 하며 분화구 주위에 모여 있을 뿐 오름은 그야말로 민둥산처럼 보였지요. 바람이 이렇게 세찬데 흙은 어떻게 날아가지도 않고 잘 있지 하며 무심히 바라본 맨도렁한 바닥! 잔디랑 비슷한 풀들이 누런 빛으로 자라있었지요. 그리고 저의 두 눈을 사로잡는 식물들...키를 세우지도 못하고 땅에 붙은 듯 땅바닥에 넓게 펼쳐져 자라 있는 식물들을 발견했지요. 세찬 바람에 키로 자라지 못하니 땅을 짚고 넓게 잎을 펼쳐 자신을 성장 시킨 식물들의 지혜였습니다. 순간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요. 자세히 살펴보니 여기저기 옹기종기 제법 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그런 식으로 자생하고 있었답니다. 생명의 숭고함! 위대함! 초연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위로만 자라는 것이 자란다는 것으로 아는 내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게 하는 순간이었지요.

관점 바꾸기는 과거의 역사를 재해석 하듯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발달장애로 인하여 지적으로 약하고 일상생활이 서투른 면을 보고는 키가 크지 않았다고만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장애인들이 각자의 특성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생활, 일상생활은 너무 세찬바람이라 자라기가 힘들어 높이를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대신 땅으로 넓은 잎과 줄기를 펼쳐 자기들의 고유한 성장을 하는 것, 즉 특유의 밝음과 단순함으로 잘 웃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있는 우리와는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끼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우리 이용인들이 이런 종류의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느님 안에서 가족들과 봉사자, 후원자 여러분들과 사랑으로 함께 하는 동반이 계속 되다 보면 우리 이용인들에게도 특성에 맞는 키를 키우는 성장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름의 꼭대기에서 봄이 되면 이루어질 그 성장을 믿고 희망합니다. 조금 더디고 높지는 않을지라도...

그동안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이용인들의 프로그램이 더욱 다양하고 알찰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현성훈 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희망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

SINCE 2011,
주간보호센터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자 & 후원자

신제주성당 레지오 자원봉사자팀

고영민, 고정복, 고정숙, 고정심, 김인옥,
김현숙, 박현숙, 송정옥, 이지선 (인자하신 동정녀 Pr.)

2014년부터 요가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김현숙 자원봉사자

긴 교편생활을 마무리하고 2005년도부터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교에서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다른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그 모습이 너무 놀라웠고 충격이었습니다. 끝내 주님께 감사로 이어졌고, 그들에게 늘 먹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간보호센터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맑은 웃음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당 레지오 단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흐뭇했고, 작지만 소중한 나눔과 베품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또한 늘 즐거움으로 장애인들에게 행복을 더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항상 마음 뿌듯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술활동 자원봉사자팀

김선희, 김양렬, 손보경, 홍귀선

2013년부터 미술활동, 원예활동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김선희 자원봉사자

나의 마음속에서 '봉사'라는 단어가 싹을 틔워 자리잡고 있을 무렵, 내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아파트 동갑내기 이웃 친구들이 있다. 친구들이 먼저 매주 목요일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동안 요가활동, 원예활동, 미술활동 등의 도우미를 하고 있었다. 친구들은 봉사활동 소식과 즐거움 등을 이야기 하며 나에게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고, 오늘에 이르렀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있었기에 '봉사'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언제나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 요즘은 주변 지인들에게 나의 봉사경험담을 이야기 한다. 언젠가 나처럼 그들도 봉사의 첫발을 내딛기를 바라며..매주 목요일 나에게 기쁨을 주고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간보호센터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랜 시간 함께 하기를 바랄게요!^^

종교활동 자원봉사자팀

화북성당 : 강순옥, 최인자 / 광양성당 : 김미경, 양인복, 원용남

2014년부터 종교활동 프로그램 시 이용인들과 함께 성당 미사참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강순옥 자원봉사자

수요일 미사시간이 가까워지면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급히 성당으로 달려옵니다. 친구들과 함께 미사참례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사시간이 가벼워지고 마음을 더 순수하게 해줘서 우리 친구들이 기다려집니다. 미사가 끝나고 친구들이 차를 타고 가는 것 까지 보고나면 마음이 참 흐뭇하고 하루가 즐겁습니다. 제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미사참례를 하면서 제가 더 힘을 얻습니다.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가활동 자원봉사자팀

김경순, 문혜숙, 임영주

2012년부터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클래식 듣기, 구연동화, 장식볼 만들기 등 재능기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문혜숙 자원봉사자

처음에는 노래를 틀어주어도 반응들이 별로 없었는데, 오랜 시간 함께 지내다 보니 음악에 반응하며 몸도 움직이고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리듬을 타는 모습들에 힘이 났어요. 전 악장이 끝날 때 친구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다함께 장식볼에 꽃장식을 달며 즐겁게 꽃볼 만들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가장 감사하게 느끼는 점은 이러한 시설이 있고, 제가 그 안에서 친구들에게 작지만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서해치과 치과전문의 정용희 원장님

이동치과진료 봉사

인제에 위치한 서해치과 정용희 원장님은 2012년부터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비롯한 제주애덕의집, 가톨로의집, 일배움터 이용인들의 건강한 치아를 위해 월3회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해주고 계십니다.

고솔비 자원봉사자

"누리보듬"캘리그래피 재능기부

박유리 자원봉사자

묵주 & 꽃차 사진촬영 재능기부

이번 소식지 발간을 위해 표지 캘리그래피와 사진촬영 재능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강사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건강 + 자신감 UP 요가, 승마, 클라이밍
배움 + 즐거움 UP 음악, 요리, 성교육

YOGA

HORSE RIDING

CLIMBING

건강 + 자신감 UP

요가, 승마, 클라이밍

여유로움을 갖게 하는 요가활동 건강한 신체를 찾아 떠나는 여행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에는 차분한 명상음악이 들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요가매트 위에 앉아 음악에 맞춰 손과 발, 허리 등을 움직이며 스트레칭을 하고 접시돌리기, 앞으로 누워 허리를 들어주는 등의 다양한 요가 동작들을 통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다양한 동작들을 포함시켜 이용인들이 보다 즐겁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요가활동은 강순심 요가 전문강사의 교육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과 하나가 되는 승마활동 몸과 마음을 힐링합니다!

화요일 운동프로그램 시간에는 제주에코승마장으로 멋진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황소, 유성, 바다 등 그 생김새만큼이나 이름들도 멋집니다. 말 먹이주기, 쓰다듬기, 끌어주기 등 말과 교감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말을 타고 드넓은 초원을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과 하나가 되는 승마활동을 통해 이용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 향상, 자세교정 및 균형감각 향상 등 좀 더 발전되는 모습들을 기대해봅니다.

※ 승마활동은 제주에코승마장 김범 전문강사의 교육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클라이밍 함께 하면 두렵지 않아요!

다음카카오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인터넷 하는 돌하르방” 지원 사업으로 제주시종합경기장 내에 위치한 오름마당에서 ‘클라이밍’이라는 새로운 운동프로그램에 도전하여 실내암벽 등반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높은 암벽에 아직은 두려움이 앞서지만, 암벽 정상까지 스스로 힘차게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 클라이밍은 대한산악연맹 소속 전문산악인 강종진 강사의 교육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움 + 즐거움 UP

음악, 요리, 성교육

황사평 울타리 안에 울려 퍼지는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매주 월요일마다 황사평 울타리 안에는 행복의 멜로디가 흘러넘칩니다. 신나게 두드리며 스트레스를 한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젬베와 난타북, 줄을 튕겨 연주하는 우쿨렐레, 쉐이킷~쉐이킷~ 율동과 함께 연주하는 다양한 타악기들을 이용하여 신나고 재미있는 음악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의 체계적인 음악활동을 통해 이용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활동을 도모하며, 보다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음악활동은 유란희 음악치료 전문강사의 교육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복함으로 맛을 그릴 수 있는 우리들은 멋진 요리사!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우리들은 멋진 요리사를 꿈꾸며 다인홈쿠킹스튜디오로 향합니다. 요리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말랑말랑 밀가루 반죽을 주무르고 내가 원하는 재료를 넣으면 어느새 달콤하고 향긋한 빵과 쿠키가 탄생! 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만들어가는 모습에서 요리에 대한 열정들이 엿보입니다.

※ 요리활동은 요리전문가 이은희 강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성! 나는 소중한 사람!

우리 몸 알기, 다양한 감정표현, 의사소통, 성폭력 예방 대처법 등 성교육 전문강사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성예절을 지키며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당당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성교육프로그램은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강숙희, 이춘화 성교육 강사의 교육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업지원프로그램

내일을 향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손으로 만드는 〈묵주 & 꽃차〉

판매수익금은 직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인들의 훈련수당으로 쓰여집니다.

사랑의 향기가 넘치는 꽃차작업

꽃차 작업을 통해 로즈마리, 레몬그라스, 애플민트, 국화차를 직접 다듬고 덖어 꽃차를 완성합니다.
싱그러운 꽃차 향을 맡으며 이용인들의 꿈도 자라납니다.

레몬그라스

싱그러운 레몬의 향이 가득한 레몬그라스 차는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피부의 불순물을 없애줍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효능도 있습니다.

로즈마리

자연 그대로의 상쾌함이 들어있는 로즈마리차는 살균, 소독 작용이 뛰어나며 노화방지,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국화차

국화차는 두통이나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고, 국화차에 들어있는 정유성분이 초기 감기로 인한 고열이나 몸살기를 배출하는데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꽃차 작업 과정 로즈마리차 만들기

❶ 로즈마리 따기 : 꽃가위를 이용하여 위에서 10cm~15cm의 연한 부분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❷ 줄기에 달린 로즈마리 잎을 하나씩 떼어 냅니다.
❸ 체망에 로즈마리를 넣고 끓는 물에 2~3초간 데칩니다.
❹ 건조기 위에 키친타올을 깔고 데친 로즈마리를 골고루 펴서 올린 뒤 40℃에 6~8시간 정도 건조시킵니다.
❺ 전기팬에 종이한지를 깔고 F점에 불을 올려 빨간 불이 꺼질 때까지 흔들며 골고루 덖습니다.

꿈을 엮는 비즈작업

우리들의 꿈을 한알 한알 정성껏 엮어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예쁜 묵주팔찌를 만듭니다.
지속적인 비즈작업을 통해 이용인들의 작업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보다 넓은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묵주는 성모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톨릭 성물입니다. 묵주기도를 로사리오(Rosarium)라고도 하는데, 이는 로사리오라는 말이 장미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묵주기도란 예수그리스도 구원의 신비 속에서 성모님께 드리는 장미 꽃다발을 뜻합니다.

터키석 1단 묵주

터키석은 성공과 승리, 지혜를 상징하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에게 사랑을,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주는 신비한 원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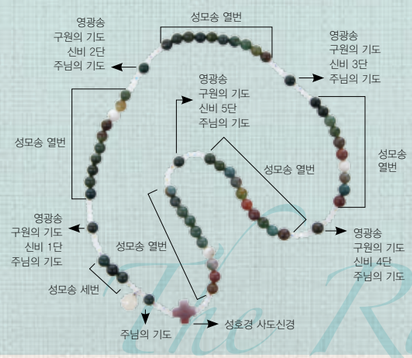
라인무광오닉스 1단 묵주

그리스어로 손톱을 의미하는 오닉스(Onyx)는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비너스가 잠든 사이 아들 큐피트가 가지고 놀던 화살촉에 의해 부러진 손톱이 모래에 파묻혔다가 시간이 지나 돌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닉스라고 합니다.

호안석 5단 묵주

갈색줄의 섬유광택이 빛의 방향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것이 마치 호랑이의 눈처럼 보여서 호안석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신상의 눈부분에 사용되었으며 통찰력을 준다고 합니다. 신념을 강하게 하고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원석이라고 합니다.

묵주기도



The Rosary (묵주)

로사리오의 모후이시여,
저희가 정성껏 엮은 묵주가
장미꽃이 되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성모님께 안깁니다.

사랑으로 이뤄진 또 하나의 가족

부모님, 사회복무요원, 교사들이 전하는 이야기들

우리 지선이가 좋게 발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흐뭇하기만 합니다.

한지선씨 어머니 **고양휴**

주간보호센터가 있어 행복합니다. 지선이 센터 친구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지선이가 일배움터에 연이 닿아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적응이 힘들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모든 분들의 고생 끝에 주간보호센터를 개원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센터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표정이 어두워 걱정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밝은 모습으로 센터 친구들과 즐겁게 잘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기만 합니다.

쇼핑을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위 분들이 우리 지선이를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좀 납니다. 지선이가 자유롭게 쇼핑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쇼핑을 더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늘 아쉽기만 합니다. 하지만 센터에서 체험활동으로 마트에 갔던 것을 이야기하며 스스로 쇼핑을 즐기려 하고, 물건을 고르는 모습에서 우리 지선이가 좋게 발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흐뭇하기만 합니다.

항상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김원현**

나는 어릴 적부터 장애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2014년 4월 7일 드디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배정받은 센터로 이동하기 위해 시청 경로장애인복지과를 찾아가 담당 선생님이 오기까지 두려움과 많은 생각을 가지고 대기 중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각 센터 담당 선생님들 한분씩 들어와 이름 호명과 동시에 각 동기들이 배정받은 센터로 하나둘씩 나가고 어느새 내 이름이 불려졌다. 담당선생님과 첫 인사 후 차량에 탑승을 하여 드디어 출발. 주간보호센터로 가는 길은 1분 1초가 1년이 지나가는 듯 했다. 센터에 들어와 선생님들과 이용인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생각과 함께 장애인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적응을 하고 처음 왔을 때 1분 1초가 1년 같던 시간들이 단 0.1초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제대가 다가왔다. 소집해제 날이 다가오며 주마등 같이 지나갔던 2년이라는 추억들. 때론 같이 기뻐하며 장난치고 함께 울고 웃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장애인들을 두려워했던 시절이 있었는지 이젠 믿기지도 않는다. 이글을 쓰면서 다시 느끼지만 장애인들은 일반인과 똑같다는 점. 아니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다. 운동도 엄청 잘하는 친구도 있으며 다국어를 하는 이용인도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싫든 좋든 이해하고 서로를 챙기며 공감하는 모습은 우리 일반인들보다 나았다는 점을 느낀다. 나는 이제 제대하여 떠나지만 우리 주간보호센터 이용인분들 너무 보고 싶을 것 같고 좋은 추억을 쥐서 고맙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시고 건강하세요.

서로를 싫든 좋든 이해하고 서로를 챙기며 공감하는 모습은 일반인들보다 나았다는 점을 느낀다.

사회재활교사 **진효정**

주간보호센터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맞춰가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작은 공동체는 더 큰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중입니다. 매일 한 걸음씩 함께 움직이는 동행자로써 묵묵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사회재활교사 **이다윤**

이곳에는 우리들의 언니, 오빠, 동생들이 함께 합니다. 가족이라 생각하니 하나같이 멋지고, 예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지만 웃음 하나,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 얼어있던 마음들이 사르르 녹습니다. 알콩 달콩 살아가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사회재활교사 **김시원**

작년 1월 말 황사평 성지에 사회복지사로서 첫 발을 내 딛었습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 오히려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인들과 첫 대면에서 저에게 꽂혔던 수많은 눈망울들은 앞으로 제가 사회복지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평생 떠올리며 살아가야 할 첫사랑의 눈빛이겠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갈라디아 2,20)

이용인들과 함께 배우며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사회재활교사 **한재호**

항상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한 한재호입니다. 작년 4월에 들어와 우리 사회적응반 이용인과 함께 생활한지도 벌써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항상 즐겁고 특별하게 생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과 같이 밝은 모습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재활교사 **김성관**

이곳에서 일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문득 대학교 교수님이 해주신 글귀가 생각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길을 편하게 만들려고 노력 할 때 우리의 발은 부드러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 글귀같이 부드러운 길을 가도록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

미션 Mission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실현하는
제주황새왓카리타스

비전 Vision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관을 실현하는 공동체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살리는 공동체

황사평 울타리 안에 옹기종기 모여
사랑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제주황새왓카리타스는
장애인거주시설 가톨로의집, 제주애덕의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성가정노인복지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인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함께 합니다.

오시는 길 You have to contact us

대중교통 이용 시 시내버스를 타고
가까운 정류장에 하차 후,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즐겁게
산책하다보면 저희 센터에 도착하게 됩니다!

제주여고 정류장 하차 시 25분 도보

3번 버스 황사평정류장 하차 시 20분 도보

50, 51, 92번 버스 한일베라체정류장 하차 시 25분 도보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세입		세출	
항목	예산(천원)	항목	예산(천원)
입소비용수입	37,930	인건비	182,547
사업수입	14,105	업무추진비	2,556
보조금수입	175,042	사무운영비	24,416
후원금수입	31,310	시설비	24,158
전입금	0	사업운영비	17,288
이월금	74,744	사업비	34,873
잡수입	4,502	잡지출	0
		예비비 및 기타	0
		차기 이월금	51,795
계	337,633	계	337,633

2015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세입		세출	
항목	예산(천원)	항목	예산(천원)
후원금수입	31,310	인건비	10,591
이월금	40,399	사무운영비	7,577
잡수입	613	사업비	7,127
		차기 이월금	47,027
계	72,322	계	72,322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미션 Mission 세상을 향한 희망의 징검다리

비전 Vision
-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며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려가는 공동체
-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삶의 공동체
-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의 이웃들이 함께 운영하는 지역공동체

VOICEYE
voiceye.com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세상에 **단 하나의 마음**을 만듭니다

세례명 이니셜을 넣은 묵주로
특별한 날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직업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산한 묵주팔찌는
제주도내 성당 및 일배움터 플로베 카페에서 상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단체 주문제작도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064-724-0999

세상을 향한 희망의 징검다리를 놓겠습니다.

- 개인 및 단체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나 CMS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며,
  정기적인 후원이 아니더라도 성금이나 물품도 커다란 힘이 됩니다.
- 후원계좌 농협 355-0007-9776-63 (예금주 :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 후원금 전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
Caritas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6330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와5길 83 전화 064)724-0999 팩스 064)724-0998 www.jejucaritas.co.kr